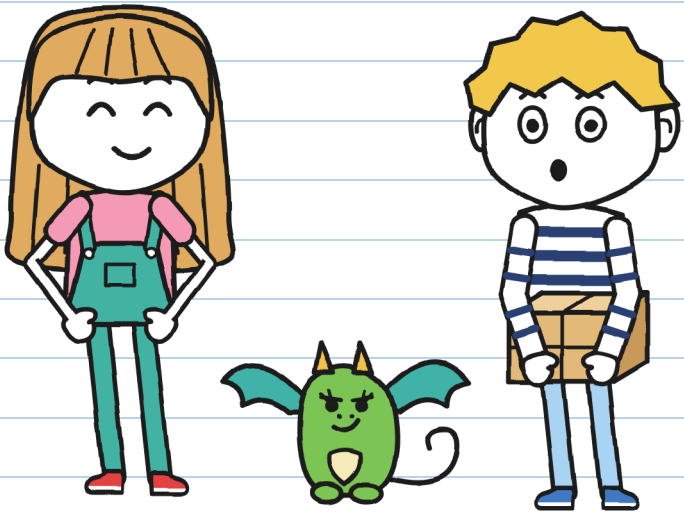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1

이 택배는 문다

Lui Eriksson



(주)의 공책)

사이즈 L
고급 · 11+

불가능 배달 · 1
이 택배는 문다

글과 그림 : Lui Eriksson

사이즈 L · 고급 · 11+

한국어판: LinguAula

초판: 2026

© 2026 Lui Eriksson · info@linguau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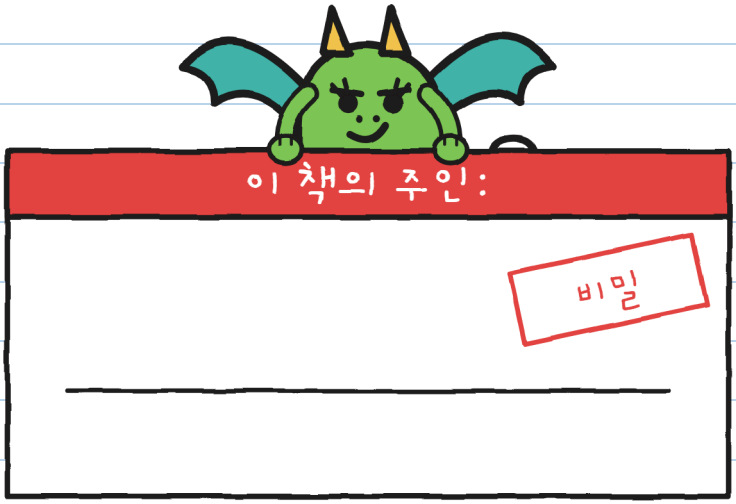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LinguAula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이 책을 쓰는 동안 다친 택배는 없다. 거의 없다.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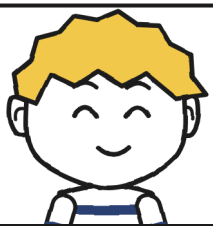


다른 누구 것도 아니야.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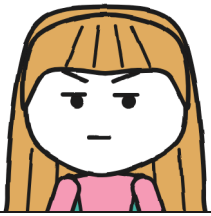
이걸 주웠다면, 해 뜨기 전에 돌려줘.

부스러기는 이야기 속에 살아서 무는 거야. 진짜 동물을 만나면
76쪽을 봐.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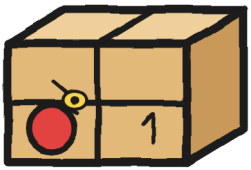
등장인물



구니. 동네에 새로 온 아이.
배달 전문가(대충 그런 셈). 이 공책의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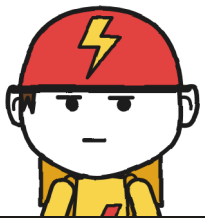
훌리타. 초록색으로 쓰고, 초록색으로 쓴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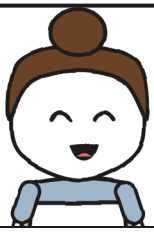
1번 택배. 받는 곳: 용의 집.
요청 사항: 따뜻하게 보관.



마라. 불가능 배달의 주인.
규칙은 딱 하나.



토쇼. 번개배송 배달원. 엄청 빠르게 엄청 지루한 걸 배달한다.



엘리아. 빵집 주인.
환기구에서는 오븐의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

배달 공책
주인: 구니

비밀.

비밀은 내가 먼저 읽는다는 뜻이야.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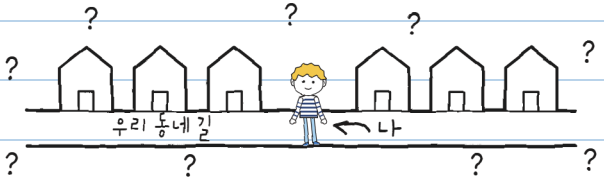


이 공책은 이삿짐 14번 상자에서 나왔다. 상자에는 '부엌'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쓰여 있었지만, 안에는 변변한 숟가락 하나 없었다. 있는 거라곤 이 공책과 짝잃은 양말, 그리고 누구 것도 아닌 고무 개구리뿐이었다.

제1장

안 되는 택배

이 동네에 온 지 4일째, 지금까지 내가 아는 길은 정확히 하나다. 그래도 그 길은 통째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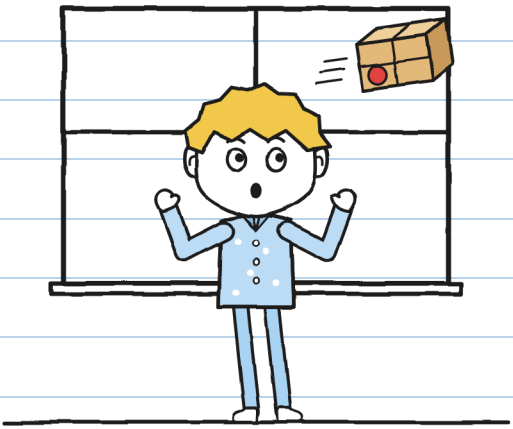


친구를 사귀는 내 계획:

1. 인사하기.
2. 재미있는 말하기.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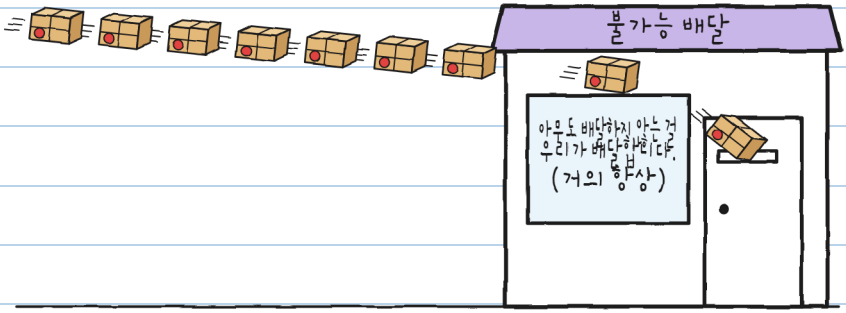
나는 2번에서 막혔고, 3번은 감도 잡히지 않는다.

오늘 아침, 내 창문 앞을 휙 날아서 지나가는 무언가 때문에 잠이 깼다.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택배였다.

그다음 또 하나, 또 하나가 지나갔다. 택배 아홉 개가 오리처럼 줄지어 길을 건너더니 맞은편 가게의 우편함 속으로 쏙 들어갔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나머지 열한 개는 내가 세상 모르고 자는 동안 이미 돌아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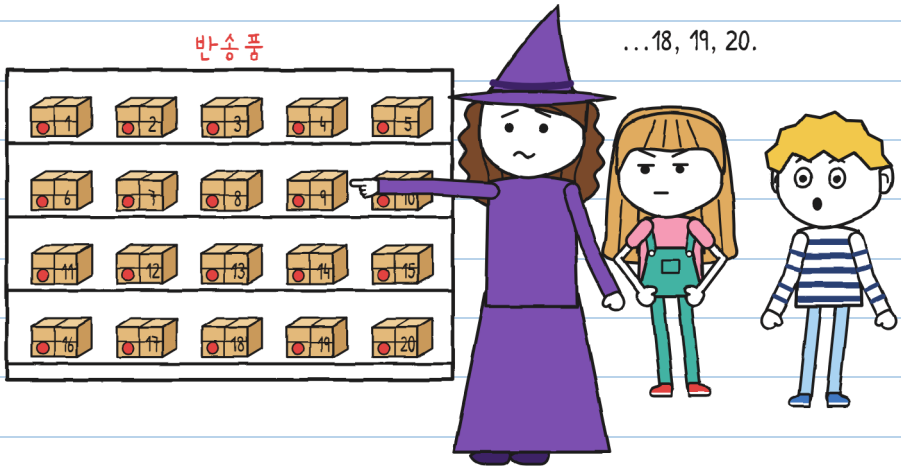


2번에 쓸 말이 생겼다. "날아다니는 택배를 봤어."

그건 재미있는 말이 아니야. 아주 흔한 일이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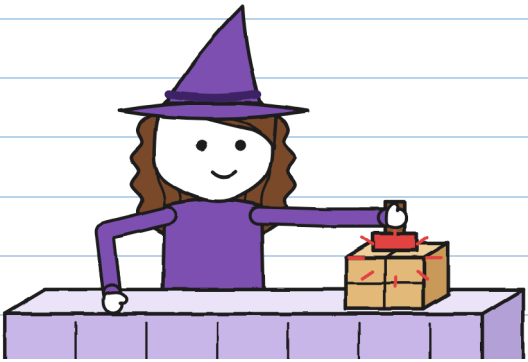
이 메모를 쓴 사람은 훌리타다. 오늘 아침 맞은편 가게에서 만났다. 훌리타가 초록색으로 쓴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직접 해봤다.

줄무늬 스웨터를 잠옷 위에 걸치고, 건너지 말아야 할 그럴듯한 핑계가 떠오르기 전에 얼른 길을 건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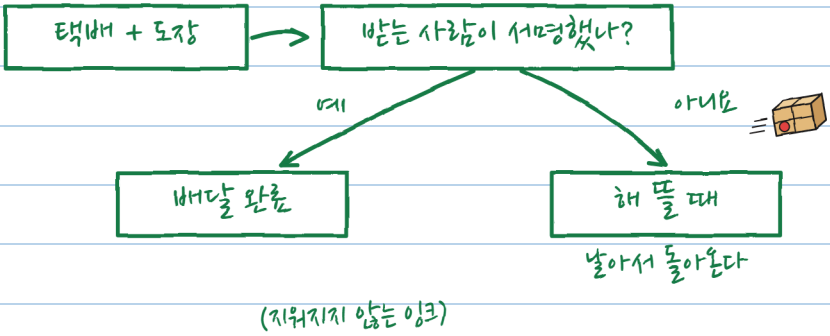


"전부 돌아왔네." 마녀가 한숨을 쉬었다. "또 이러네."

마녀의 이름은 마라인데, 불가능한 배달을 하는 가게의 주인이다. 전구를 삼킨 것처럼 환하게 빛나는 도장도 가지고 있다.



훌리타는 허락을 구할 생각도 없이 내 공책에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지워지지 않는 잉크)

그러면 사라지는 택배는 없어. 배달되는 택배도 없고.

선반에 놓인 건 돌아온 택배다. 아무도 배달하지 못한 스무 개인데, 게다가 전부 같은 사람이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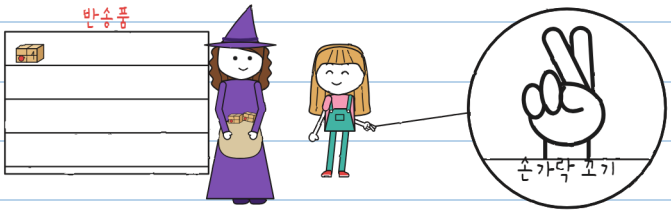
받는 곳: ...
보내는 사람: **R.**

"R.이 누구예요?" 내가 물었다.
"글씨가 엉망인 사람이지." 마라 아줌마는 그 말뿐이었다.

마라 아줌마는 택배 열아홉 개를 자루에 넣었다. 그날 밤 등대에 피아노를 배달하는 김에 이 택배들도 다시 해 볼 작정이었고, 해 뜰 때 돌아온다고 했다. 선반에는 하나만 남았다.

"그건 안 돼." 마라 아줌마가 경고했다. "규칙은 딱 하나야. 선반에 손대지 마."

"물론이죠." 휼리타가 장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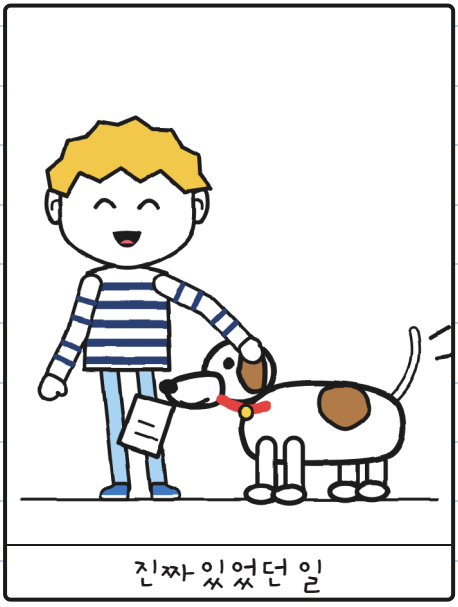
문이 닫히자마자 훌리타는 택배를 받기 전에 크기를 가늠하는 사람처럼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 배달할 줄 알아?"

그러자 나는 친구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했을 법한 말을 했다:

"응. 예전 동네에서 나는 배달 전문가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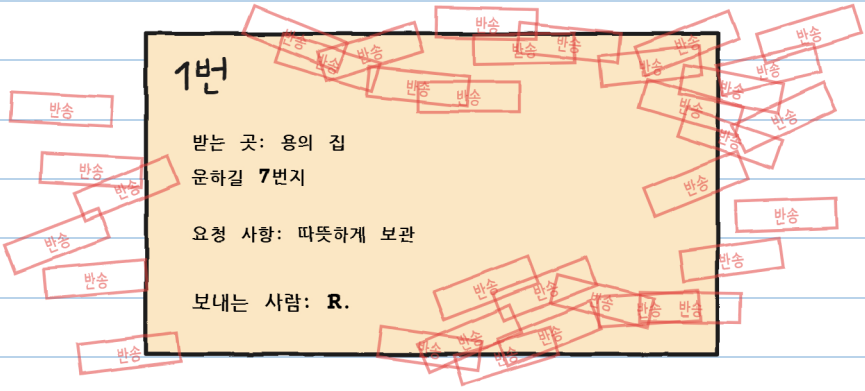
내가 한 말



진짜 있었던 일

강아지 전문가.

훌리타는 하나 남은 택배, 1번 택배를 꺼냈다. 안 되는 그 택배였다. 훌리타의 손이 조금 떨렸다. 내 손도 떨렸지만, 나는 훨씬 더 잘 숨겼다. 나를 들키게 한 건 뒤집어 입은 스웨터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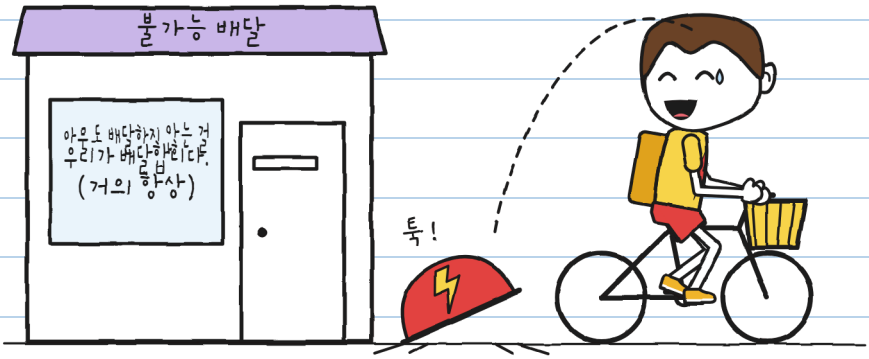


"해 뜨기 전에 배달하면, 마라 아줌마도 드디어 내가 돌아온 택배를 배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겠지."
훌리타가 조리 있게 말했다.

"안 되면?"
"안 되면 혼자 돌아올 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빈틈 하나 없는 완벽한 계획 같았다. 아직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랐으니까.

자전거 벨이 따르릉 울리더니, 가게 유리창 건너편에 헬멧을 쓰고 노란 가방을 멘 남자아이가 나타났다. 가방은 글자로 소리치고 있었다. '번개배송.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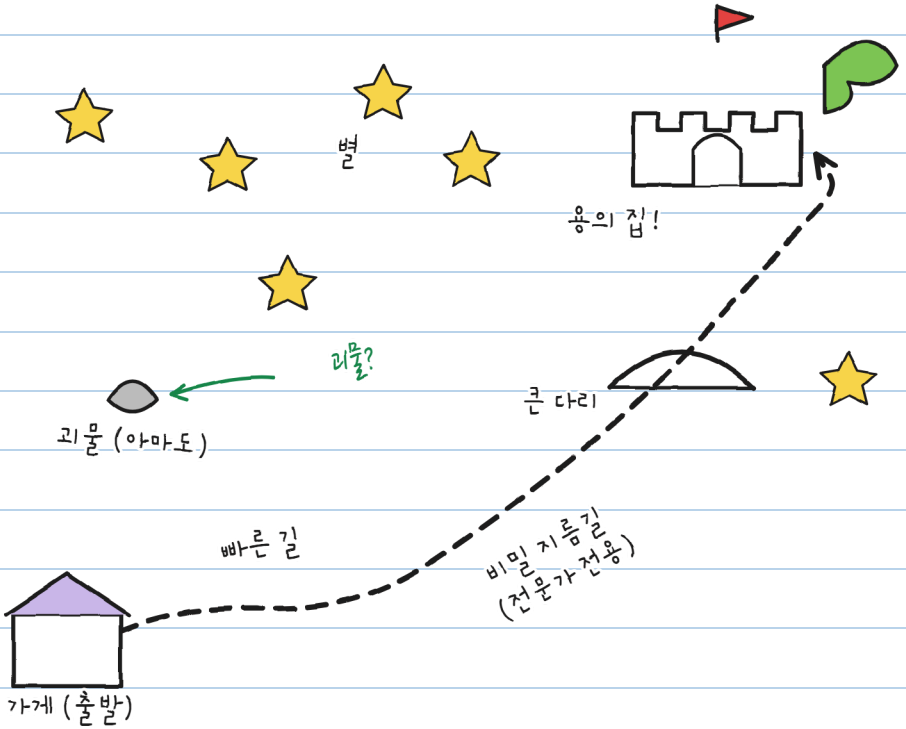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남자아이가 비웃었다. "너희가 뭘 하나라도 배달하는 게 불가능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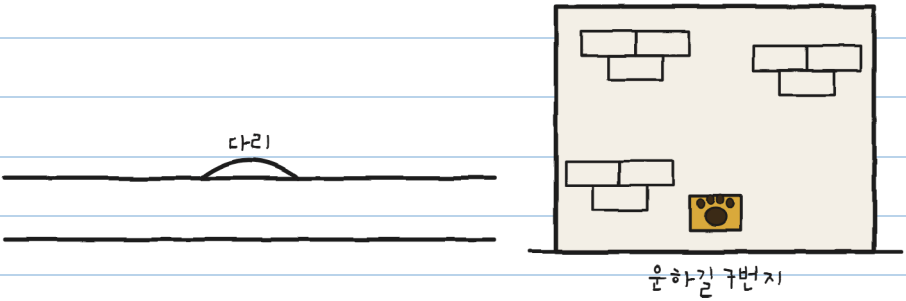
토뇨. 엄청 빠르게 엄청 지루한 걸 배달한다.

"그럼 오늘은 이걸 배달하겠어." 훌리타가 도도하게 대꾸했다. 토뇨는 '용의 집'이라는 글자를 읽고는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헬멧이 떨어졌다.

배달 약도를 그렸다. 배달 전문가는 약도를 그리는 법이고, 나는 바로 그날 아침부터 전문가였으니까.



별은 가는 길에 없다.



운하길 구번지

운하길 구번지는 집이 아니었다. 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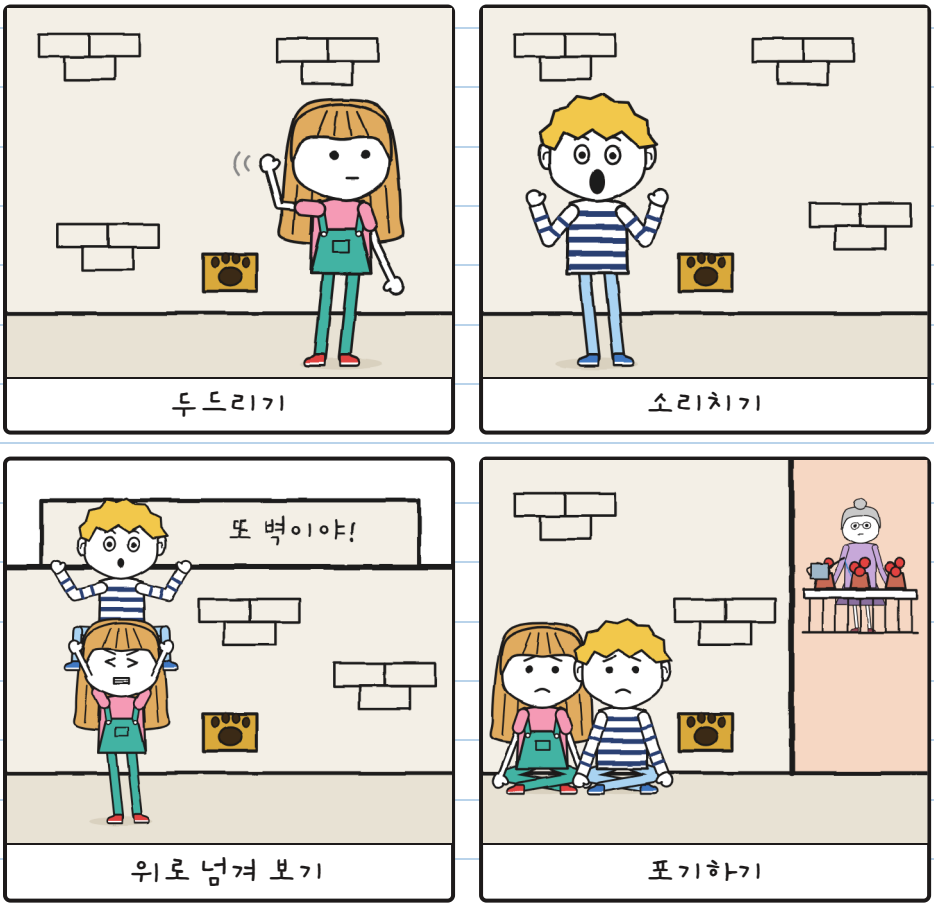
문도 창문도 없는, 파리도 미끄러질 만큼 매끈한 벽이었다. 벽에 달린 거라곤 바닥에 거의 닿을 만큼 낮은 곳의 놋쇠판 하나뿐이었다. 판에는 모양이 이상한 홈이 있었는데, 아주 작은 무언가에게 딱 맞는 높이였다.



놋쇠판

"어쩌면 우편함일지도 몰라." 내가 슬쩍 의견을 냈다. 택배는 옆으로 세워도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는 벽을 상대로 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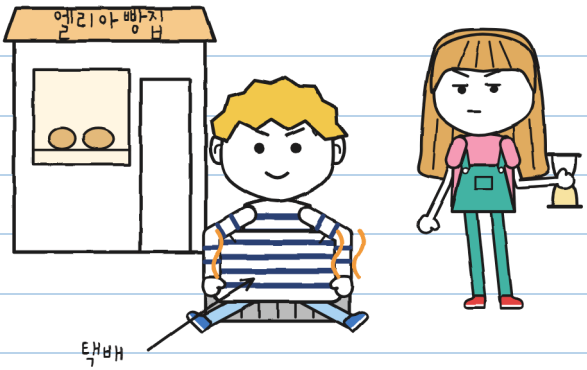


옆집 발코니에서 제라늄에 물을 주던 아주머니가, 이미 수없이 본 광경이라는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택배는 몇 년째 여기에 오고 있단다." 아주머니가 한마디 했다. "올 때마다 온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소매 속으로 파고드는 추위였다. 훌리타가 다시 라벨을 읽었다.
"'따뜻하게 보관'이래." 훌리타가 말했다. "그런데 몇 년째 얼음장 같은 선반에 있었다니."

나는 새로 왔고, 새로 온 사람은 아직 설명을 글자 그대로 따른다. 무언가에 '따뜻하게 보관'이라고 쓰여 있으면, 나는 따뜻하게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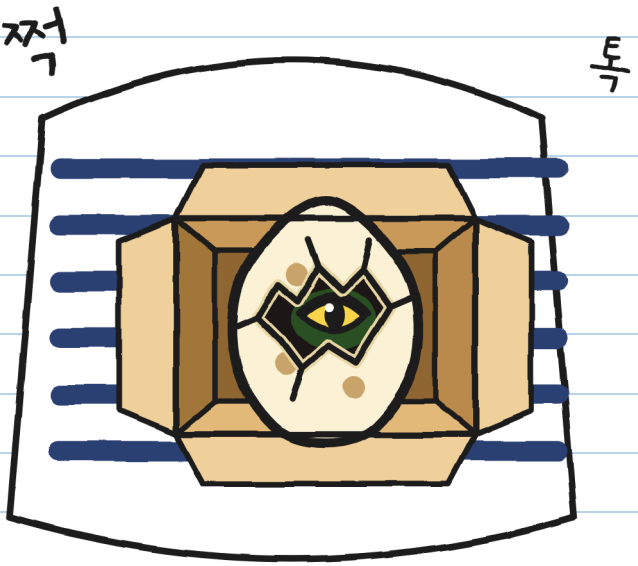
택배를 스웨터 안에 넣고 큰 다리를 다시 건너서, 오븐의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는 엘리아 아줌마네 빵집 환기구 위에 앉았다.



너 꼭 아기 배변 우체통 같아.

우리는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다. 누구라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만들 빵 냄새에 둘러싸여, 나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때 무언가가 내 배를 톡 쳤다. 톡.

"방금 네 배에서 난 소리야?" 훌리타가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내 배는 '톡' 소리 같은 건 안 내."



그리고 택배가 나를 쳐다보았다.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사이즈는 여섯 가지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쪽수와 그림이 같다. XL은 소설이다. 이야기하는 방식만 다르다.

사이즈 XXS · PRE-A1
에취, 아기 용이 작은 불꽃을 뿜어!

사이즈 XS · A1
나는 평범하게 재채기를 했다.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재채기로 내뿜었다. 불꽃이 라벨 모서리를 태웠다.

사이즈 S · A2
나는 평범하게 재채기를 했다.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재채기로 내뿜었다. 불꽃이 라벨 모서리를 태웠다. 그러자 아기 용이 그 모서리를 먹어 버렸다.

사이즈 M · B1
나는 평범한 재채기를 했지만,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내뿜어 라벨 모서리를 태웠다. 그러고는 탄 모서리를 먹어 버렸다.

사이즈 L · B2
나는 평범하게 재채기를 했다. 그에 비해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내뿜어 라벨 모서리를 그을렸고, 그러고는 태연하게 그 그을린 모서리를 먹어 버렸다.

사이즈 XL · B2-C1
삽화 소설 · 13+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각자 자기 사이즈로 이야기는 같아. —J.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